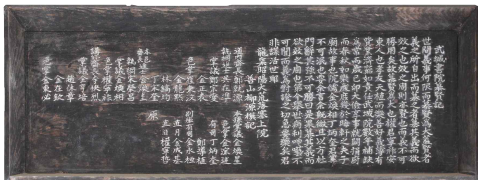


##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1953\_유원모(柳源模) 지음\_27.0×75.0cm



1953년 권영조(權寧祚)가 무성서원 직임을 수행하며 향사를 포함한 서원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내용이다. 기문은 유원모(柳源模)가 작성하였다.

### 武城書院慕賢記

世間義事何限而慕賢爲大蓋賢者義之所自出而慕之者慕其義而欲效之也效之周則亦賢也而義不可勝用矣故慕賢爲大也權君寧祚安東人也孝友天植而樂善好義薄有資業濟窮如責任武城院數年補缺爲常而歲己卯大儉享事就闕捐廚而春秋如樂歲庶幾於晦軒之夫子廟故事也院儒金煥相丁炳奎君等不可泯也要余言余既微且以方杜門辭其強不可勝曰是果慕其義而欲效之周也第今舉世病利呻吟不可聞而義爲對證之切急要藥矣君非謀活世耶

龍集昭陽大荒落塞上院

善山柳源模記

道內齋長	鄭就源
執綱 進士	吳在準
掌議	鄭宗燮
	金正表
色掌	崔東汶
	金龍默
	林鎬均

	丁宋奎	色掌	金東必
本邑齋長 進士	金煥圭	本孫掌議	金煥星
執綱	宋榮昌	色掌	金宗述
掌議	金煥相	有司	丁炳奎
色掌	權寧祚		鄭尊植
講修齋長	李快烈	別庫有司	金永恒
掌議	金亨培	直月	金成基
	趙休章	直日	權寧哲
	金在欽	原	

####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세상에 의로운 일이 무수히 많지만 현인(賢人)을 존모(尊崇)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개 현인은 의리가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으로, 현인을 존모하는 것은 그의 의리를 사모하여 본받고자 해서이다. 현인을 본받기를 충분히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현인이 되어 의리를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인을 존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영조(權寧祚) 군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천성이 효성과 우애가 있었고 선행을 즐기고 의리를 좋아했다. 다소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곤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겼고, 수년간 무성서원(武城書院) 직임을 맡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태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았으며, 기묘년(1939)에는 향사(享事)를 크게 절약하여 부족한 곳에 비용을 사용했고 봄가를 제사 때 풍년이 든 것처럼 풍성하게 지내 거의 회헌(晦軒 안향(安珩))이 부자묘(夫子廟)에 했던 고사(故事)에 가까웠다. 무성서원의 서원 유생(儒生) 김환상(金煥相)과 정병규(丁炳奎) 군 등이 권영조의 이 일을 사라지게 그냥 둘 수 없어 나에게 기문(記文)을 요청했다. 내가 이미 미천하고 또 지금 두로불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양했는데, 애써 요청함을 이길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일은 참으로 현인(賢人)의 의리를 존모하여 충분히 본받고자 한 것이다. 다만 지금 온 세상이 이익에 병들어 신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이니, 의리가 증세에 딱 맞는 절실하고 요긴한 약(藥)이다. 권영조 군(君)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용집(龍集 세차(歲次)) 계사년(1953) 새상원(臺上院)에 선산(善山) 유원모(柳源模)가 짓다.

도내 재장(道內齋長)      정취원(鄭就源)  
 집강(執綱) 진사(進士)      오재준(吳在準)

장의(掌議)	정종섭(鄭宗燮)
	김정표(金正表)
색장(色掌)	최병문(崔秉汶)
	김용묵(金龍默)
	임호균(林鎬均)
	정송규(丁宋奎)
본읍 재장(本邑肅長) 진사	김환규(金煥圭)
	송영창(宋榮昌)
	김환상(金煥相)
	권영조(權寧祚)
강수재장(講修肅長)	이쾌렬(李快烈)
장의	김형배(金亨培)
	조휴장(趙休章)
	김재흠(金在欽)
색장	김동필(金東必)
본손 장의(本孫掌議)	김환성(金煥星)
색장	김종술(金宗述)
유사(有司)	정병규(丁炳奎)
	정도식(鄭導植)
별고 유사(別庫有司)	김영환(金永桓)
직월(直月)	김성기(金成基)
직일(直日)	권영철(權寧哲)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